

- 주요 뉴스: 11월 FOMC, 11월 테이퍼링 시행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
 - 미국 10월 ISM 서비스경기지수, 66.7로 집계 시작(1997년) 이후 최고치
 - ECB 총재,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
 - 중국 정부, 생활필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11월 FOMC가 완화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0.7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상승[+5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또 다시 사상 최고치
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과 원자재 관련주 강세 등으로 사상 최고 수준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조기 금리인상 전망의 악화 등이 매도 증가로 연결
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는 약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승
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관측이 악화되면서 보합 마감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0.0원, -2.7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1/3일	11/2일	전일대비			11/3일	11/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60.6	4,630.7	0.65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0%	1.55%	5bp
	유럽	481.22	479.53	0.35%		독일	-0.17%	-0.17%	0bp
	중국	3,498.5	3,505.6	-0.20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휴장	29,521	-		중국	46bp	48bp	-2bp
	한국	2,975.7	3,013.5	-1.25%	위험 지표	EMBI+	-	385	-
환율	달러지수	93.87	94.09	-0.23%		VIX	15.10	16.03	-5.80%
	유로화	1.1612	1.1579	0.28%		WTI유	80.86	83.91	-3.63%
	엔화	114.01	113.96	-0.04%	원자재	구리	436.0	436.6	-0.15%
	위안화	6.4066	6.4000	-0.10%		금	1,769.8	1,787.8	-1.00%
	원화	1,181.6	1,174.4	-0.6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FOMC, 11월 테이퍼링 시행. 기준금리 동결.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

- 11월부터 매월 자산매입을 150억달러(국채 100억달러, 주택담보증권 50억달러) 축소. 경제 전망이 변하면 매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. 현행 기준금리(0~0.25%) 유지.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반영한다고 진단
-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신호를 발신하는 것은 아니며, 지금은 금리인상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언급. 또한 최대고용 시기는 내년 중반으로 예상하고,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
- Natixis의 Joseph Lavorgna는 이번 FOMC는 기존의 시장 예상과 비교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고 평가. Edward Jones의 Mona Mahajan은 이번 결과가 당초 전망을 고려할 때 완화적(dovish)이라고 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0월 ISM 서비스경기지수, 66.7로 집계 시작(1997년) 이후 최고치

- 이번 결과는 전월(61.9) 및 예상치(62.0)를 큰 폭으로 상회. 항목별로는 신규수주(63.5→69.7) 등이 큰 폭으로 상승. 운송 시간이 증가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공급 차질의 여파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

■ 미국 10월 ADP 민간고용, 전월비 57.1만건 늘어 전월(56.8만건) 대비 높은 수준

-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(40만건)도 상회. Moody's Analytics의 Mark Zandi는 팬데믹 충격을 제어한다면 향후 더 강력한 일자리 회복 기대가 가능하다고 평가

■ 미국 재무장관,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을 위한 채권 발행을 지원할 방침

- 옐런 장관은 저소득 국가의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기후투자기금(Climate Investment Funds)에 대한 도움을 약속

■ ECB 총재,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

-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. 이번 발언은, 최근 증가하고 있는 ECB의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

■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증가

- 바슬레 총재는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, 임금인상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. 다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2022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
-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내년 인플레이션은 2% 미만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. 이를 고려할 때, 내년 금리인상은 필요 없다고 강조

■ 중국 정부, 생활필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

- 국무원은 고기와 야채 등의 생활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. 최근 코로나 19와 비정상적인 날씨 변화 등으로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. 또한 야채 등 식료품 등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

■ 중국 10월 차이신 서비스 PMI, 53.8로 7월 이후 최고치. 양호한 수요 등이 견인

-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에도 수요가 증가한 영향. 다만 시장에서는 서비스 수요의 경우 제조업 부문과 비교하여 코로나 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에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

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, 기준금리(1.75%) 동결. 경기회복 지원이 목적

- 대외 수요 확대, 민간부문 지출 증가, 경기부양책의 지속 등으로 2022년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. 다만 공급 차질 악화, 새로운 코로나 19 변이 발생 가능성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공장수주(전월비): 0.2%, 8월(1.0%), 예상치(-0.1%)
- 미국 10월 마켓 종합 PMI(확정치): 57.6, 9월(55.0), 속보치(57.3)
- 유로존 9월 실업률: 7.4%, 8월(7.5%), 예상치(7.4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4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라가르드 총재 및 슈나벨 위원 강연,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
- 미국 9월 무역수지, 10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유로존 9월 생산자물가, 유로존 10월 종합 PMI(확정치), 독일 9월 공장수주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, 시장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진행될 소지 - 블룸버그

(The Fed Has More to Do Than the Market Recognizes)

- 투자자들은 경기 정점 시기에도 기준금리가 2%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. 하지만 연준의 2% 인플레이션 목표를 고려한다면 중립 금리는 2~3%에 이를 것으로 추정. 그러나 평균물가목표제 시행으로 인플레이션은 3%까지 상승 가능
- 이를 반영하면 중립금리는 3~4%까지 상승할 수 있고, 연준도 인플레이션의 장기 목표(2%) 회귀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금리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
- 역사적 측면에서도 금리는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. 예를 들어 연준은 2004~2006년에 기준금리를 1%에서 5.25%까지 17차례 연속 인상. 또한 높은 수준의 금리는 향후 위기 대응 시 보다 양호한 정책 유연성을 제공

■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, 여타국 통화정책에 주목할 만한 내용 - WSJ

(The RBA's Defeat Down Under Should Worry Central Bankers)

- 호주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국채금리를 0.1%로 고정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(YCC) 정책을 철회.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로우 총재는 시장 신뢰 훼손을 감수하고 YCC를 유지할 것인지, 아니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인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
- 다수의 여타 중앙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며, 향후 통화정책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. 다만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관련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의 압력을 반영

■ 미국 증시, 실적 랠리는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 - 블룸버그

(The Earnings Rally Was Great. Shame It's Over)

■ 유럽 마이너스 금리 국채의 감소, ECB의 금리인상 기대 증가를 반영 - WSJ

(Negative Bond Yields Recede in Europe)

■ 영국의 EU 이탈, 성장 여력 축소로 비용부담은 커질 전망 - Financial Times

(Boris Johnson cannot escape the costs of Brexi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